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아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 증정 시간을 가집니다. 연계하여 '어르신 야유회'를 5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가집니다. 야유회 장소는 '이천 도자기 마을'입니다. 관심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봄맞이 전교인 야유회'를 가집니다. 남·여선교회 준비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다음 주일 점심은 강숙여 권사님 가정에서,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박성대 집사님입니다.
5. 2024년 '필리핀 보홀 단기선교'를 위한 모임이 주일오후예배 후에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참가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5월 12일	5월 12일	5월 19일	6월 2일
예배기도(2부)	신동기 집사	박성대 집사	오진석 집사	이준화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전교인 야유회	강숙여 권사 가정	가정의 주일	필리핀 선교팀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등)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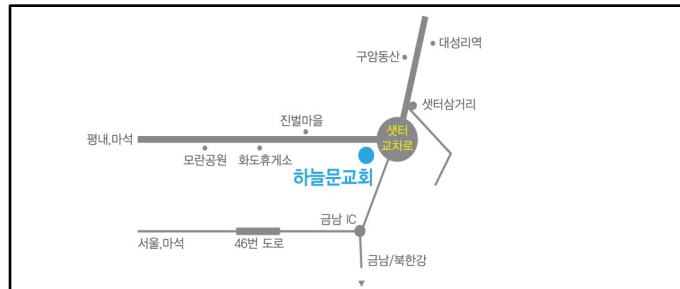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98번(아버이주일)	다같이
*경배찬송	5장(통 3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	송	579장(통 304장)	다	같이
대표	기도		1부인도자, 2부신동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엡 4:1-6.....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씬 선 포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허영진 목사
마 무 리 기 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로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7:1-13 '아, 변화산'(2)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하늘 한 번 보자

한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해가 지면 그나마 선선해지면서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산책하기에도 운동하기에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운동이 필요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 실행에 옮겼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기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에 일부러 먼 곳을 택해 걸었습니다. 갈 때에야 좋지, 막상 그 먼 거리를 돌아오려니 아찔합니다. 사실 이렇게 걷는 산책도 부침(浮沈)이 심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정도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 일부러 한낮의 더위와 언덕을 택해 목적지까지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날도 한낮의 더위와 씨름하며 한참을 걸었다. 그러다가 전날 밤 비바람에 떨어진 잎사귀들을 보면서 시간의 빠름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펴듯 들었습니다. 연초록의 잎사귀를 틔운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낙조의 계절인가 싶어서입니다. 분명 주변은 여전히 신록으로 우거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일까. 정해놓은 목적지를 땀 흘리며 향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숨이 턱에 차고 가뻔했습니다. 흥겨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시간의 한계 안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언덕길을 반복해서 걷다 목적지에 닿았는데, 돌아갈 길이 아득합니다. 한참이나 쉬다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굳이 땅을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돌아오는 길엔 하늘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한결 걷기에 수월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세워 시도해 보지만, 그 한계의 끝자락에서 세심 낭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면 삶이 조금해집니다. 이런 삶의 조급함은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곤 합니다. 사람이 땅의 일에만 매여 있으면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물론 하늘만 바라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적 노력,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면, 언젠가는 낭패를 넘어 목적지에 성큼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힘겹더라도 자주 걸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늘을 보면서 말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